



제빵사 잭 필립스는 동성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끝내 승리했다.

## 신앙의 자유의 승리를 보여준 5가지 사건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달 31일 ‘2018년 종교의 자유가 승리한 5가지 사건’을 정리했다.

### 1.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소방서장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켈빈 코크란(Kelvin Cochran)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만 달러(우리 돈 약 13억 4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소방청에서 일했던 코크란은 지난 2015년 그의 책을 다른 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해고됐다. 성경공부를 위해 쓴 이 책에서 그는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기독교적 믿음을 언급했는데, 동성애를 성적 도착이라고 했다. 코크란이 해고 됐던 건, 그가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책을 홍보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크란은 애틀랜타 시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법원은 2016년 코크란의 손을 들어주었다.

### 2. 캘리포니아 낙태 통고법(abortion notice law)을 폐지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주가 낙태에 반대하는 임신센터들에게 낙태 등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반하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 3. 연방대법원에서 끝내 승리한 제빵사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콜로라도 주에서 제재를 받았던 제빵사 잭 필립스가 지난해 6월 4일 대법관 7대 2의 판단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당시 판결이 있기 전 과연 대법원이 종교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썼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은 콜로라도 주정부 측이 “필립스가 그의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콜로라도 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라 행동해선 안 된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주정부 측이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적개심은 법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했다.

### 4. 기독교인 플로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취소시킨 연방대법원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식에 쓸 꽃 장식 서비스를 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플로리스트에게 벌금을 내라고 한 워싱턴 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 5. 무죄로 석방된 아시아 비비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가 지난해 10월 무죄로 석방됐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명성하며 적절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아시아 비비는 지난 2009년 무슬림 여성들과 말다툼 끝에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후 그녀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진영 기자

## 〈신년사〉 편집고문 박희민 목사

###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품자



박희민 목사

새희망과 가능성의 약속을 주는 2019년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독일보 독자와 모든 가정과 교회, 우리 동포사회와 미국사회,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와 세계속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된다고 저절로 새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속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고, 새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하셨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William Carey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사건, 위대한 발명, 위대한 새 역사는 꿈꾸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어졌습니다. 새해는 큰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출발과 새삶을 위해 낡고 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들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새해는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나쁜 언어의 습관을 버리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습관을 길러갔으면 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고 공동체와 사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부지런한 습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 먼저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새해는 우리도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서로 섬겨주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온것은 섬기기 위해 왔으며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으름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는 교회와 동포사회, 미국주류사회와 분단된 조국, 그리고 온 세계가 서로 잘 소통하고 나눔으로 전쟁과 피흘림, 폭력과 테러가 사라지고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컬러프린트/컬러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감사 예배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자 51대 회장 목사 샘 신  
 취임자 52대 회장 목사 김관진

- 일 시 : 2019년 1월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장 소 : 가든 스위트 호텔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 초청인 : 남가주 한인목사회 제52대 이·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 부회장 목사 박 세 현(323)404-3147  
 위 원 부회장 목사 이상권(213)435-2266 / 양경선(213)255-1725  
 이정현(714)390-9197 / 조미나(213)858-9147  
 총 무 목사 강태광(323)578-7933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315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20



샘 신 목사  
 이임회장



김관진 목사  
 취임회장

※ 본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예약 좌석 관계로 1월 9일까지 참석예약 마감합니다.



## 벤츄라카운티교회연합 성탄감사찬양예배



벤츄라카운티 지역 한인교회가 지난 16일 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성탄감사 찬양예배를 드렸다.

벤츄라카운티 지역 한인교회가 지난달 16일 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성탄감사 찬양예배를 연합해 드렸다.

이상영 목사(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반채근 목사(씨미벨리 한인교회)가 기도하고 조인 목사(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요한일서 4:1-3절을 본문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카마리오연합

감리교회가 "모두 기뻐해", "알렐루야", 벤츄라감리교회가 "천사 찬송하기를"과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을, 씨미벨리한인교회가 "교요한 밤 참된 빛이 오시네"와 "주 나신 소식 들리네"를, 카마리오열방교회가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와 "찬양해 우리 주께"를,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가 "복 있는 사람"을, 새생명교회가 "영원히 찬양드리세"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를, 주님의교

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노래"를 불렀고 남재현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주최측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며, 이날 헌금은 벤츄라 카운티 사회 구호금으로 '라이트 하우스', '더 시티 센터'에 전달될 것이라 전했다.

## 남가주 교협, 어려운 이웃 돕는 사랑의 나눔 계속 돼



남가주교협에서는 나눔 선교회를 방문해 사랑을 나눴다.

남가주 교협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나눔 축제를 이어갔다.

18일 장애인 시설과 홈리스 선교단체 등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22일에는 KCBC 기독교방송과 함께 오전 7시부터 다운타운에서 홈리스들에게 사랑의 담요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나눔 선교회를 방문해 예배와 찬양으로 위로를 전하고 쌀과 담요 등을 나누었다.

안신기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경건회는 김향로 이사장이 기도하고 김성대 부회장이 설교했으며 한기형 회장이 축도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2부 발표회는 김숙영 사

모가 이끄는 실로암 중창단과 신정은, 신지아, 안지안의 협주 그리고 최경섭 목사의 솔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남가주교협은 무궁화양로센터를 방문해 경건회와 발표회,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무궁화양로 센터를 방문하여 경건회와 발표회,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안신기 총무가 기도하고 백종운 목사가 설교하였으며 한기형 회장이 축도했다. 2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 성금연 가야금 산조 이수자인 지윤자 사모(고수 이병상 목사)가 가야금 연주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은혜로교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황리 개최



은혜로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칸타타 공연을 했다.

지난 2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은혜로교회(김경환 목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공연했다. 양재훈 장로가 환영사를 전하고 기도한 후 연합성가대(지휘 윤영진 집사, 반주 나인숙 집사)가 여러 음악 스타일을 창조적으로 사용한 에드 호건의 오케스트라 편곡을 통해 더욱 극적이고 즐거운 작품으로 재창조된 칸타타 곡 '어

둠에서 빛으로, '참 반가운 성도요', '천사 찬송소리', 칼립소 스타일의 '찬양해 노엘', '촛불 카논', 가스펠 스타일의 '모든 성도여 일어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빛으로 나오라'와 회중과 함께 피날레 곡 '할렐루야 빛 되신 주' 부르며 총 9곡을 선사했다. 매 곡을 시작하기 전 강우중 전도사, 김미영 사모가 나레이션으로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탄생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전했다. 강우중 전도사와 김미영 사모는 "이 거룩한 사건은 땅을 가로질러 널리 전파되었지만 왕이요, 구주시요. 구원자께서는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계셨습니다. 바로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나님 사랑은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 아기는 희망과 평화와 사랑 또한 기쁨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 분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 안에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그의 빛은 내적이고도 영원한 빛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곡 '할렐루야 빛 되신 주'를 회중과 함께 찬양한 후 김경환 목사의 광고 및 축도로 이 행사를 마쳤다.

## 살롬장애인선교회, 제19회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제 19회 장애인가족 장학금수여식을 거행했다.

1999년 6월 1A에 설립되어 지난 19년 동안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선교를 위해 헌신해 온 살롬장애인선교회는 12월 20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아로마윌셔센터(AROMA WILSHIRE CENTER) 5층에 위치한 더 뱅퀏(The One Banquet)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축파티" 및 "제19회 장애인가족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장애인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격려가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교 재학생, 총 18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14,400 달러를 전달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 2019년 GMS 미주 OMTC 선교사 훈련생 6기 모집

“건강한 선교를 위해 훈련과 정식 파송은 필수입니다.”

GMS(Global Mission Society)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한국 최대 선교단체로, 현재 100 개국에 2600여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에서 GMS정규 특별과정 6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기 원하는 분이나, 파송단체가 없는 현장 선교사나 혹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4주간 정규특별과정을 마치시면 GMS 정식 선교사훈련 수료증과 파송과 임명을 받게 됩니다. 훈련 장소는 플러튼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에서 진행되며, 강사진으로는 선교 전문성을 갖춘 GMS 이사들과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GMS선교사로 훈련받아 파송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



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미주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GMS 미주 OMTC선교사 6기 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 1.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 2월 22일(금) 4주간
- 2. 장소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 3. 과정 :** GMS특별과정
- 4. 강사 :** 김정훈 GMS이사장, 박무용 OMTC이사장외 다수
- 5. 훈련비 :** 1,500불(숙식 포함)
- 6. 대상 :**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 7. 자격 :** 1) 목사선교사후보생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합동교단 목사  
2) 장기파송은 부부선교사 파송을 원칙으로 함  
3) GMS 아메리카지역 소속된 각 지부 지부장 추천 받은자  
4) 전도사나 평신도는 타 교단 소속도 가능함
- 8. 훈련 :** 4주 훈련을 원칙으로 함
- 9. 등록 마감 :** 2019년 1월 21일(월)
- 10. 문의 :** 미주 OMTC간사 훈련원 간사 김수정 선교사
- 11. 연락처 :** T.(714)323-5011, (714)614-3666 **E-mail:** igmc21@gmail.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4〉

## 사우스베이 산샘교회 예배당 봉헌예배 이야기

필자는 부족한 중에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의 회장직의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 지역 교회 중에 산샘교회(담임 윤석형목사)가 지난 11월에 예배당 봉헌예배를 드렸다. 필자는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참석했던 300여명의 축하객들이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다. 일단 예배당 건물은 오래된 웨어하우스를 개조했는데 화려하지 않았다. 내부도 가급적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들었다. 유난히 눈에 띄었던 곳은 강대상 앞쪽이었다. 나무로 짜여진 강대상은 커거나 우아하지 않았다. 강단도 마루로 짜여졌고 그 위에 놓인 의자도 강대상과 같은 나무였다. 정면에서 약간 좌측 앞면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십자가도 같은 나무로 짜여졌다. 이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하나하나 직접 설계하고 짚고 했다.

소박함과 겸손함이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단결력이 돋보였다. 필자는 이미 건축봉헌한 교회에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 오랫동안 묵회해서 이런 예배당 건축의 경험이 없기에 그 교회가 지난 1년여간 힘써 건축하면서 함께 해 온 희비애락의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간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 교회 건축은 교인 모두가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여간 어려운 결단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교우들이 하나가 되었다 한다. 담임목사님도 그의 고백처럼 1년간 목사가 아닌 목수로 지낸 것 같아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저분이 참 목회자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다 주중에 작업복을 입고, 예배당의 낡은 부분을 떼어 내는 것을 시작으로 바닥 콘크리트, 미장과 페인트 마무리까지 교우들이 온 힘을 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해 기쁘게 해 나갔다.

인상적인 장면은 대학 청년들은 물론 어린 유초등부, 유스 자녀들까지 하나 되어 성전의 안팎에 페인트 칠을 하는 모습이었다. 담임목사님이 직접 짜신 예배당 앞면에 세울 큰 나무 십자가를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대표들이 함께 들고 입당하는 장면에선 감격의 눈물까지 날 정도였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면 대부분 교우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산샘교회는 건축 기간에 교우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를 체험했다.

민음의 리더십을 잘 보여준 장로님들의 겸손한 모습들이 좋아 보였고, 아이들부터 교우들 전체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화합의 모습 속에서 산샘교회의 영적 사기가 높아져 있음을 보았다. 건축 중에도 열방의 선교지를 향한 교회의 열정과 전도사명은 위축되지 않았고, 후원받은 여러 선교사님들, 교단의 어른들까지 참여해 같이 축하해 주는 모습들도 너무도 보기 좋았다.

사우스베이 지역에 자람하고 싶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온 교우들이 단결하여 헌신한 산샘교회가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필자가 축하하면서 기도하는 바는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얻은 산샘교회는 더욱 겸손하고 아름답게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성장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의 교회들도 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거울삼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신년사〉 벤츄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회장 남재현 목사

## 비상하는 한해가 되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지고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기해년(己亥年)은 우리 한국사람이 좋아하는 돼지해이다. 돼지 꿈이라도 꾸고 나면 오늘 하루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 시골에서 돼지를 기른 일이 생각난다. 어미돼지는 적어도 10마리쯤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마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기쁨에 온 동네를 뛰어다닌 추억이 있다. 우리 모두 돼지 꿈에 마음이 설레듯 2019년도 한해에 마음 설레는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신문과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섷다운, 중남미 국가 이주자들의 캐러밴 행렬, 자녀들의 다니는 학교마저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총기와 테러의 위험 등 어느날도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남재현 목사

자는 새해를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40:31절)

비록 어둡고 힘든 출발이지만 우리가 남다른 비상을 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새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새해는 내가 처한 환경, 상황, 현실만 바라보면 얻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와 고통 속에는 반드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물론 모든 실패와 고통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보고 있는 현실, 부당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는 믿음의 눈이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비상하려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다른 보석이 흉내낼 수 없는 자태를 갖게 된다.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 장애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집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신년사〉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 회장 이상훈 목사

##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대망의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기독교일보 독자들, 교민사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드립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1:7-8)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인해 혼탁해져 가고, 전쟁과 종교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며, 인류는 더욱 불확실성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 분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경청하며 순종하는 길만이 이 세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경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 살방도를 제시할 수 있는 선지자적 교회의 꿈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개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교회 안에 속한 지체들이며, 이 땅의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들”임을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교회연합이 이루어

여져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일보는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들의 협력자로 또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안내하면서 미주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문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일보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주 교계와 교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힘은 역시 독자들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치 않는 구독과 후원 및 가르침으로 더욱 건강하게 바로 서는 기독교일보가 되어드리도록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9년 새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남가주헬로쉽교회 이웃초청 성탄 축하잔치



2017년 성탄절, 불우이웃을 위한 성탄축하를 개최했던 남가주헬로쉽교회(박혜성 목사)는, 2018년도 성탄절을 맞아 포모나 지역 불우이웃들과 노숙자들을 초청해 이웃초청 성탄축하 잔치(Community Christmas Celebration)를 열었다.

약 1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함께 예배하고 식사했으며 교회 측은 준비된 자켓을 나누며 이웃 섬김을 실천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마태복음 19:16-22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미련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57-58에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집이 필요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육신이 원하는 세상조건의 장막이나 물질적 기대심리보다는 영적으로 하늘소망에 더 나은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16절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체험을 주셔서 믿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힘쓰고 애쓰며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영적인 성과를 얼마나 올려드렸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의 입장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여야 들어가는 것 처럼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자기는 그곳에 갈 자격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년도 영생에 관심이 많고 확신도 있고 꼭 들어가야겠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죄를 짓지 않게는 될 수 있으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원죄를 전가받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지키기 그 이전까지 지은 죄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죄가 사라지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는 하늘나라 갈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믿어질 때까지 성령이 뜨겁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집중적인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파송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순종해 살기만 하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그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일러주시며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장담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진실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하십니다.

유대인이며 율법주의자인 이 청년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확실한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두고 우리 자신과 비교하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 위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리(財利)의 유혹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식(蠶食)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는 믿음은 없고 그저 믿는 척하면서, 신앙은 겉데기뿐이고 실속은 육신이 세상 허욕을 위해 돈을 좇아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돈을 좋아했던 모 권사님 이야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로 세움 받았던 이 할머니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던 사람도 이 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받고 살아나곤 했습니다. 이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 사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기도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양하듯 받다가 나중에는 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물어본 후 기도해 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때는 이미 60억정도 되는 돈을 모은 상황이어서 자녀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주고 건물도 사주고 땅도 매입해서 자기 재산 늘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은 병이 나서 앓다 죽게 됩니다. 이분은 당연히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교회의 권사이며, 하나님의 도구로 병자들을 고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보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귀와 같은 자들이 와서 자신을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중 한줄기 빛이 보이면서 천사 둘이 자기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 자세히 보니 천국 문이 닫혀있고 천사들은 자기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이 확증되게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신유의 은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결국 천국에 갈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지옥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 나라위해 남은 생을 살고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한다면써 애걸복걸 매달렸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이 권사님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는 자녀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다가 문이 닫혀 못 들어가고 마귀들이 나를 지옥의 어두운 곳으로 끌어들이기에 지옥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애원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돌아가 내가 나누어준 재산을 빨리 정리하여 내게로 다시 가져 오거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의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여 모두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21-23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계산적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 값을 값없이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을 구속하여 하늘나라까지 값없이 주려고 했었는데 결국 육신의 세상허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인

생을 속셈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속의 청년은 계명을 모두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시고 “네가 진실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으면 가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너의 재산을 정리해서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좃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저축한다고 현금도 하고 몸으로 헌신도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하늘에 쌓아놓은 공적이 그 사람과 영원히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늘소망의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신나는 믿음생활로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현금도 아낌없이 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는데 과정에 믿음이 점점 더 하늘나라로 무르익어 가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으로 빠져들어서 재리(財利)의 유혹에 얽매어 벗어나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천국백성이 되지도 못하고 실직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24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하신 말씀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답하십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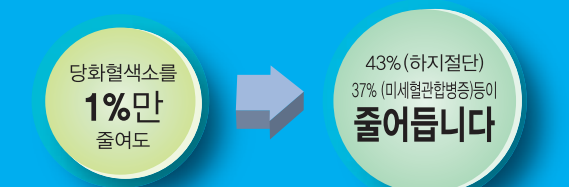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과대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LA에서부터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들

핵심은 아연의 흡수

(O-4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8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GAIA COR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천미**



##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항암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종양 억제율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만니톨, 에르고스테롤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니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겐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장애를 예방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과 함께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먹습니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요거트에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밥할 때 넣어서 밥(4인분 기준 4스푼)을  
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뿌려서 먹습니다.

**구입  
문의**

**213.434.1170**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서북미 청소년 겨울 영어 캠프, 2018 J&I D2BD 컨퍼런스

## 2018 J&I D2BD 서북미 청소년 겨울 캠프, 거룩한 삶 살기로 결단

타코마 교회연합회가 주최한 청소년 겨울 영어 캠프 2018 J&I D2BD 컨퍼런스가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타코마 중앙선교교회(담임 김삼중 목사)에서 열렸다.

5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서북미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

캠프는 남가주 열바인 침례교회 영어부 에스더 정 전도사, 용명중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며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도전했다.

캠프는 성경 강의 외에도 브라이언 밀러 박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강의와 질의문답을 통해 평소 궁금해 하던 신앙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됐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가치관 등을 갖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캠프를 진행한 최명신 목사는 “이번 수련회는 서북미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학문도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참석한 청소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 순종하며 살겠다’고 간증하는 등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이어 “캠프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캠프를 위해 후원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타코마 교회연합회,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타코마 연합감리교회, 타코마 중앙선교교회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북미 청소년 캠프는 앞으로도 기독교 부흥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미래의 영적 지도자와 리더로 양성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성경 학습과 성경적 원리와 원칙을 가진 삶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을 통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시대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내가 가진 전부 드린다’ 한인들 사랑에 재소자들 결신 늘어



제3회 스미스교도소 독방집회

제3회 스미스교도소 독방집회가 지난 13~14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인교도소선교회(Korean Prison Ministry, 대표 김철식 선교사)와 아틀란타중앙장로교회(담임 한병철 목사)가 한국음식으로 재소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으며 이 외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다.

독방집회는 1,600명의 재소자들에게 풍성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으며 말씀을 통해 11명의 결신자가 생겼다. 집회는 오카리나 연주팀(신혜경 외 5명)과 고전 무용팀(우효숙 전도사 외 3명) 그리고 한

국에서 방문한 인간문화재 최성옥 씨가 수고하기도 했다.

집회에서 19살의 한 재소자는 13살에 소년원에 갔다가 주립 교도소로 이감 되면서부터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는 간증을 하기도 했다.

집회 중 한 형제는 하얀색 십자가와 알파 목걸이를 한병철 목사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며 선물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봉사자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앤더슨 김 기자

### 〈신년사〉 빅토밸리한인목사회 회장 김성일 목사

## 신앙의 유산을 돌아보는 한해

문서 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2019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밝은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빅토밸리 한인 목사회에서는 올바른 역사관 속에 우리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1.5세와 2세대들이 자신들이 한국인이며 미국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민 1세대들이 달성해 놓은 위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빅토밸리 한인 목사회에서는 봄 여름 가을 세 차례의 목회자 수련회를 통해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신구약 성경의 배경 시대의 유물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후세에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목사회 단체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각 교회 성도들도 이를 통해 이 같은 현



김성일 목사

를 할 것입니다. 일 년 동안 지역의 각 단체장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섬겨나갈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교회들을 섬겨나가는 목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가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장을 살펴 볼 기회들이 다함께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회 주최 연합기도회들을 통해 이 지역의 미 주류 교회들과도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 년 동안 지역의 각 단체장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섬겨나갈 것입니다.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비질라학교(1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의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를 막고,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O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왕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O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O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아래배)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O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O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만) (소매점) 오전 11:00

**정창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알,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O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사모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부유이 이동부예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 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정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사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회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박호우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고대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김성원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장주영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승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공부 오전 10:00-오후 1:00

##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ietchurch.org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00(토) 오전 6:00

##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랜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이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최승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 할렐루아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승호 담임목사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1부 오전 7:00 JOCC Academy  
주일2부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주일3부 오전 11:15 EM 오전 11:15 (교육관)  
(Benedict Service)  
사랑부 오전 9:00 (교육관)

##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왕님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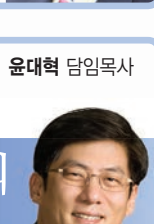
방수민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2부 오전 9:40 EM 2부예배 오후 7:30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윤대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여왕님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환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 은혜와평장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최 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 “北, 억류한 남한 선교사들 즉시 석방하고 송환하라”

한기총,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성명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서 최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입장을 28일 밝혔다.

한기총은 “최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4년째 연속 UN총회에서 채택됐고, 매년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에는 정치범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그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지도층’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국제오픈도어즈선교회 발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7년 연속 북한은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로 지목됐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북한 성도

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다”며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 발각되면 감옥이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또 “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우리는 북한 정권과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나. 북한 정권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선교사들을 즉시 석방시키고 본국으로 송환하라.

하나. 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감옥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인 북한성도들을 즉시 석방하라. 하나. 전 세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생명권과 인권, 특별히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더 나아가 북한 동포들의 영육구원과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대웅 기자

# 안양대 비대위, 타종교 매각 반대 ‘1천만 서명운동’ 전개

재학생-학교-교단, 한국교회 1천 2백만 동참 호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 제공

70년 역사의 기독교 사학인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대진성주방면(이하 대진성주회)에 매각될 위기에 빠진 가운데, 구성원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

안양대 동문들과 재학생, 교수, 안양대의 교단인 예장 대신 총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안양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전 총장, 이하 비대위)와 안양대 총학생회는 28일 오전 공청회를 열고 현 상황을 보고했다.

공청회에는 재학생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매각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면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신학대 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는 이사회 측의 학교 타종교 매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광태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퇴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서명운동은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진 안양대학교를 불법적 방법으로 뒷거래 형태로 타종교인 대진성주회 산하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들을 한두 명씩 이사로 교체하는 형태로 학교를 매각하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사장 김광태 장로(과천 은파감리교회)와 이사진들은 학교 매각을 위해 지난 8월 이사 2인 교체 후 교과부 승인을 받았으며, 12월 이사회에서 또 다시 2명의 이사진을 교체하고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가 이번 이사진 교체 건까지 승인할 경우, 학교는 사실상 대진교육재단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전형적인 뒷거래 방식의 학교 매각”이라며 “계약금을 받고 이사진을 교체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이사진을 또 다시 교체하며, 마지막으로 잔금을 받고 이사장 자리를 넘기는 형태의 사학 비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 허가를 신청해 매각할 경우 상당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이사진을 교체하는 형태”라며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러한 사학 비리를 철저히 감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이처럼 사학을 불법적으로 매매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재단은 아무런 피해 없이 수백억원을 챙겨 나가지만, 남아있는 학교 공동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가야 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안양대학교 한 관계자는 “우일학원은 지금까지 학교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그럼에도 즉별 경영과 갑질로 일관한다. 끝내 학교 건학이념까지 훼손하면서 학교를 타종교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사장 아들은 직원, 사촌





故 오토 워비어의 부모 ©연합뉴스TV

## 미국 법원 “워비어 고문·억류 북한, 5억 달러 배상하라”

### “전체주의 국가의 불모로 쓰는 잔혹함”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풀려났지만 이내 숨진故 오토 워비어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약 5억 113만 달러(우리돈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현지시간 24일 판결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북한은 워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월 판사는 또 “5일 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대 3학년이던 오토 워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워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불모로 쓰는 잔혹

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 체는 전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앞서 오토 워비어의 가족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우리돈 1조 2,40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오토 워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워비어는 “아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됐다”며 북한 당국에 정확한 사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문가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워비어 가족이 깊은 슬픔과 고통에도 북한 정권에 용기있게 맞섰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제2의 오토 워비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 신근본주의, 아이반젤리컬… 美 복음주의의 5가지 유형



▲©Unsplash/Shawn Frankland

복음주의의 본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선거 이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복음주의에 대한 5가지 새로운 유형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종교 및 시민 문화센터는 ‘미국 복음주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5가지 유형은 트럼프 복음주의자들(Trump-vangelicals), 신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Neo-fundamentalist evangelicals), 아이반젤리컬(iVangelicals), 킹덤 크리스천들(Kingdom Christians), 그리고 평화와 정의 복음주의자들(Peace and Justice evangelicals)이다.

보고서는 “첫째, 각 유형은 복음주의 신학에 관한 기본 합의를 맺고 두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의 교회나 단체를 미국 복음주의의 더 큰 전통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셋째, 이들의 신학은 적절한 사회적 정치적 행동, 종교적인 헌신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등 세계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단일 범주에 깔끔하게 맞지 않거나, 범주 간 이동할 수 있거나,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남침례교 윤리 및 종교 자위원회의 회장인 러셀 무어(Russell Moore)는 신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로

분류되었지만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평화와 정의 복음주의자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복음주의자’(Trump-vangelicals)들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지지의 핵심은 주로 백인이지만 라틴계 목사와 흑인 목사도 있다. 그들은 정치 권력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선택하시고 축복 하셨다고 믿는다. 주목할만한 인물로는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제임스 돕슨(James Dobson), 프랭클린 그라함(Franklin Graham) 및 제이 팔웰 주니어(Jerry Falwell Jr.)가 있다. ‘신근본주의 복음주의자’(Neo-fundamentalist evangelicals)들은 또한 트럼프의 기반의 일부이지만,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그의 도덕적 실패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들은 개인적인 도덕성과 올바른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주목할만한 인물로는 알 몰러(Al Mohler),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및 토니 에반스(Tony Evans)가 있다. ‘아이반젤리컬’(iVangelicals)은 메가처치 운동에서 비롯됐다. 정치적으로 다소 보수적이지만 정치를 강조하지 않고 당파색을 피한다. 대체로 백인들과 교외 거주자로 구성된 그들은 주일예배와 개인의 신앙 향상에 중점을 둔다. 주목할만한 인물로는 조엘 오스틴(Joel Osteen), T.D. 제이크(T.D. Jakes), 힐송(Hillsong) 목회자들이 있다.

이미경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2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EMBible Study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중고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미인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목) 5:00am  
최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목회기도회 9:00pm  
금요온전물야예배 8:00pm  
(다름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r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예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3부(영어) 오후 1:30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7시 30분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매일 4째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행함으로 열방을 살리는 복음전도회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복음전도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침례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하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아침이예배 오전 11시 30분  
현당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의 영에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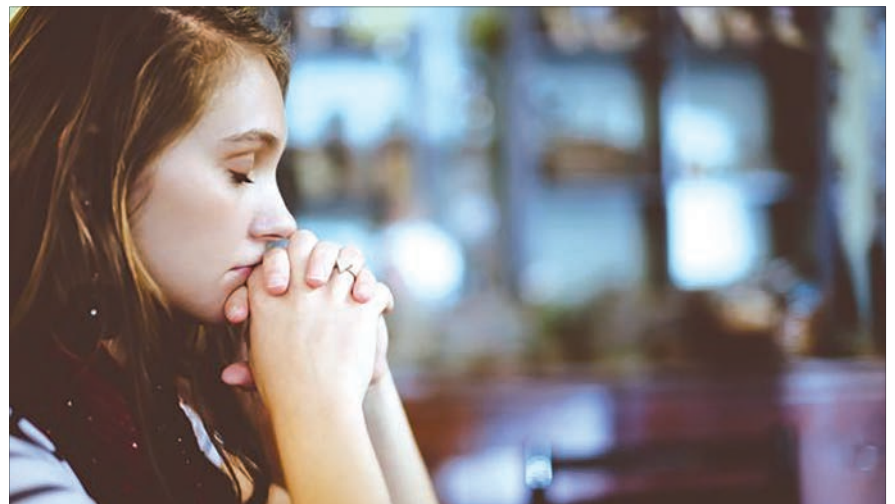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새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 5가지

### 처치리더스닷컴 소개



©pixabay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5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 가장 첫 번째는 당신의 삶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처럼 말이다.

2. 해로운 관계성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해로운 관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이 수 있다. 최소한 당신에게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기 위해 필요한 여지를 주고, 올바른 관계성으로 나아가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당신은 반드시 영적 생활에 관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해로운 관계성을 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때 마주하게 되는 자유는 믿기 힘든 것이다.

3. 지역교회나 소그룹에 들어가라.

당신을 지지하는 이들과 신앙의 여정을 돕는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교회나 소그룹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보다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필요할 때 지혜를 얻으며, 힘든 순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행함이 있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

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길 원한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가 나온다.

4.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원한다. 당신은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채우라. 단순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든지, 매일 말씀을 깊이 보든지, 성경읽기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두고 배운 것을 투명하게 적용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읽기 시작하라.

5.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으라.

기도는 핵심이다. 때로는 기도가 이상하게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기도를 하나님과 당신의 대화로 여기라. 단순히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촛불을 켤 필요도 없고, 향을 피우거나 사제복을 입을 필요도 없다. 맘을 편하게 갖고 평안을 얻으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호흡 없이 숨을 쉬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진리다.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길 바란다. 의미가 있는 관계는 어떤 것인지 훌륭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의 방향을 세우는 방법

미국 크로스교회 담임목사이자 국가조찬기도회 테스크포스팀 소속인 로니 플로이드(Ronnie Floyd) 목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의 방향을 세우는 방법'에 관한 칼럼을 소개했다.

칼럼에서 로니 플로이드 목사는 "우리가 2018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교회에서 세운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삶과 기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목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21일 간 연속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참을 요청했고, 가능하면 금식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성개발, 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강단에서 기도회를 인도했다. 임원들이 먼저 나섰고, 성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4가지 특별한 주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4가지 주제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짐(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2020년까지 교회의 모든 채무 정리 △삶과 미래에 관한 소망 등이다.

플로이드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여행, 21일 간의 특별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가셨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나눈 주요 내용들이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울 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 21일 동안 당신이 영적인 삶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교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특별히 21일 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당신이 수 천 명의 교인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꾸준히 21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모두가 참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했다. TV 금식, 소셜미디어금식, 하루 금식 등 그동안 집중했던 무엇인가를 그만둘 수 있다. 초점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전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모두들 각자에게 맞는 헌신의 수준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이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이다.

21일 간의 집중기도를 넘어서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독서의 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비록 각자가 다른 계획을 선택하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구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누는 것이다.

강혜진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 소금과 같은 기독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가 열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입니다. 소금 때문에 세상이 살 맛도 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다의 염도는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 염분으로 바다가 썩지 않고 온갖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인류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보고가 됩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소신껏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민족과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이루어졌던 전 민족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비폭력, 무저항의 자세로 임한 운동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화합과 사랑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낭



임성진 총장

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민족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현실도피적 내세신앙에 몰두하거나 기독교정신으로 민족과 나라의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양면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만 택하고 다른 것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모든 것에 녹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서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부정과 부패, 집단 이기주의, 각종비리, 미투운동,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는 3.5%의 염도만 있어도 그 곳을 찬란한 삶이 번득이는 생명 공동체로 유지하게 하고

3.1 운동 때는 국민의 1.5% 입에도 온 민족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가 이제는 전 국민의 2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왜 온갖 슬픈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금인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하여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적다는 어느 목회자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2019년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 세상을 정화하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

## 복음의 쟁기로 기경하는 신년



이상명 총장

시간과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18년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교계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2019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기 소망합니다.

영국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은 <오늘을 사랑하라>라는 시에서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외칩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 뿐 / 오늘을 사랑하라 / 오늘에 정성을 쏟아라 /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 오늘처럼 중요한 시간도 없다 / 오늘을 사랑하라 (생략)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비결일 것입니다.形形色색의 오늘이 모여 우리 생애를 만들지만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시대 속에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의 혼곤한 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며 아파하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현재 시간 속에서 세속의 낯은 가치와 쏘인 욕정에 거침없이 도전하며 복음의 전사(戰士)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장단 맞춰 2019년 미래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이기 기원합니다.

세속적 가치와 인습적 지혜에 물들어 묵정밭 같이 되어버린 이 땅을 4,300여 개의 한인 교회가 하나되어 복음이라는 쟁기로 기경해 나가는 꿈을 꾸어 봅니다. 나아가 미주 한인 교회가 유일한 분단국가인 조국과 750만 여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인구와 미주 지역 한인들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기 소원합니다. 세계화로 인한 부의 편중, 계층간 갈등, 생태

계의 극심한 파괴, 세대간 신앙 단절, 신앙 공동체의 와해 등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연대하여 해결할 현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엡 2:10, 새번역) 2019년이 끝날 때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동 터오는 새해에 희망을 꿈꿉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손길에서 희망의 근거를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의 궁극적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희망을 견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희생적 결단과 온전한 순종을 동력으로 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과제 속에서 2019년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인 교회,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한인 사회, 그리고 우리가 발 붙이고 사는 이 땅이 복음의 근간을 붙잡고 씨름하여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2019년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도 옛 모습 그대로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인간의 기습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새해에는 더 나은 생각과 삶을 살아 갑시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은 봉사를 해도 희생을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이 사회에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므로 후회하지 않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샌퍼난도밸리교회 회장 김선일 목사

## 사랑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열 가지, 백 가지를 잘하고도 한 가지 못해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열 가지, 백 가지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대 역전극을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실수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백 가지 천 가지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인생이 후반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청결한, 의로움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부모님은 청결한 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이름값을 못했지요. 토색은 속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권력도 가졌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입니다.

삭개오는 한 평생을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한가지 잘함으로 나머지 인생을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과 삶을 바꾸어 나갑시다.



김선일 목사

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돈이면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병원은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물질을 얹어도 행복이 없고 권력을 얹어도 행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많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만남이 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꼭 만나야 할 만남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만남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는 만남이요,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자국민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비난과 멸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즉각적으로 그의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돈이 별것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겨울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마감일:2018년 12월 10일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 겨울학기일정

2018년 12월 15일 (토) - 2019년 2월 23일 (토)  
(매주 토요일 4과목 12학점이 개설됩니다)

1교시 | 오전 9시 - 오전 11시  
2교시 | 오전 11시 10분 - 오후 1시 10분  
점심식사 | 오후 1시 10분 - 오후 2시 10분  
채플 | 오후 2시 10분 - 오후 2시 40분  
3교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40분  
4교시 | 오후 4시 50분 - 오후 6시 50분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 모집과정

#### 학사

BACHELOR OF THEOLOGY 신학사  
BACHELOR OF MISSIONARY 선교학사  
BACHELO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사

#### 석사

MASTER OF DIVINITY 교역학석사  
MASTER OF THEOLOGY 신학석사  
MASTER OF MISSIONARY 선교학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학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사

#### 박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THEOLOGY 신학박사  
DOCTOR OF MISSIONARY 선교학박사  
PH.D.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학철학박사  
PH.D.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철학박사



# “선교사 멤버케어, 80%는 문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KPM 멤버케어원장 이정건 선교사·박은주 선교사 부부

“지금까지 저희 선교사 멤버케어는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건강 문제, 탈진, 추방 위기, 후원교회와의 단절 등 문제가 일어난 후 케어하는 측면이 80%,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이 20%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멤버케어의 원리에 따라 문제 예방이 80%, 문제 해결이 20%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선교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일 못지않게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총체적으로 준비시키고 돌보는 통합적 멤버케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16년 11월 교단선교부 중에서는 최초의 선교사 멤버케어 전문 기구로 설립된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멤버케어원(KPM Member Care Center)은 현재 전 세계 54개국에 파송한 252가정 477명(정회원 239가정 460명, 준회원 단기선교사 13명, 자비량선교사 4명)과 선교사 자녀(MK) 539명, 생존해 있는 선교사 부모 485명 등 총 1,501명을 상대로 멤버케어를 실행하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KPM 이사회 안에는 KPM 선교본부 부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인 멤버케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멤버케어위원회는 위원장 정근두 목사(울산교회)를 비롯하여 위원으로 박은주 목사(은혜샘물교회), 천환 목사(인천 예일교회), 김한식 목사(거제호산교회), 최영택 장로(최영택 정신과의원 원장), 강연정 교수(고신대),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임경심 선교사(한국선교상담지원센터·MCC)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선교본부 안의 멤버케어원은 선교본부 밖의 멤버케어위원회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좀 더 실제적인 멤버케어 사역을 실행하고 있다.

—멤버케어 사역이 지금 한국선교 상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정건 선교사=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선교를 수행하는 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건강해야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춘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탁월한 선교사를 파송,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왔다. 한 해에 많게는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힘을 쏟았으나, 지금은 성장이 뒷걸음쳐 파송 숫자가 3분의 1이나 급감했다. 또한 파송 열정에 비해 파송 전 훈련과 파송 후 관리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선교를 지향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젊은 선교사의 지원이 줄어들고 선교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은 선교사 중도 탈락 문제의 첫 번째 이유로 꼽혀 왔다.

이정건 선교사=여러 통계에서 선교사의 철수 원인 가운데 1순위가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선교사들의 팀빌딩과 인간관계만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도 문제 해결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멤버케어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엔 A국을 방문했는데 선교사 네 가정이 서로를 잘 알고 팀워크 형성하도록 도와왔다. 앞으로 사역의 80%는 문제 예방, 20%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박은주 선교사=선교사마다 사역에 대한 관점이나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 팀사역을 할 때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을 종종 본다. 특히 마음껏 전도하고 설교할 수 없는 보안 지역에서 이로 인해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가령 ‘쫓겨나면 선교할 수 없으니 신분을 감추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간이 걸려도 한 명 한 명 접촉해서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입장과 ‘내일 쫓겨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할 수 있다.

사역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은 평소 생각과 기질,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로를 잘 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갈수록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정건 선교사=선교의 문은 원래 열렸다, 닫혔다 한다. 중국과 인도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베트남도 문이 닫히고 있다.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마이너스인 이유 중 하나가 3개월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비자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인도는 이웃나라를 방문했다가 비자를 받아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까지 나와야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베트남은 같은 나라라도 지역별로 다른데, 북부는 선교 여건이 굉장히 엄한 반면 남쪽은 좀 더 자유롭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90년대 초 구소련 붕괴로 개방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다. B국의 경우 한때 한국 선교사가 1,500여 명이 될 정도로 많았으나 대부분 추방당하거나 추방 전 철수하면서 현재는 10여 가정 정도 남았다. 그런데

## KPM 멤버케어원장 이정건·박은주 선교사 부부(上)

요즘 또 B국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선교사들이 안정적인 비자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보안지역에서의 비자 문제는 사역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것은 인위적 노력에 한계가 있다. 중국 등 보안지역 선교사들의 추방이 가속화되어가는 현실 앞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교사 경제 추방이 일어나면 우선 국내 정착을 위한 거처를 제공하고, 초기 대응으로 개별 및 가족 면담에 이어 상담 전문가, 정신과 의사, 목회자들과 함께 심리치료를 하도록 한다. 필요하면 가족여행을 주선하며 후원교회, 선교본부와 충분한 의논 후 재배치 과정까지 돕는다.

박은주 선교사=비자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녀들의 학교 입학 자격은 제한되기도 한다.

한국어 교수 사역 비자는 얻기 쉬운 반면, 일에 매여 교단 모임 등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자칫 선교를 과외 활동으로 하는 생계형 사역자가 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외 멤버케어를 할 때 현장의 선교사가 토로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정건 선교사=선교지에서 자녀 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희 멤버케어원은 MK의 대학 진학에 관한 도움을 주고, 장학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은주 선교사=현지 학교는 너무 열악하고,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해 부담을 떠안은 선교사가 많다. KPM은 MK 연령별로 학비 보조금을 책정하여 지원한다.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국비장학생 제도는 굉장히 유용하다. 대신 학사가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한국에서 방황하거나 신앙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성도들 가정 중 자녀를 다 키우고 부부만 있는 집에서 마음이 있으면 MK들을 대리 부모처럼 돌봐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현재 턱없이 부족한 MK를 위한 학사관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 어려운데, MK는 정말 잘 준비된 선교 자원이라 이들을 선교

사적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차세대 세우는 첫 번째가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MK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면 ‘한국선교가 끊어진다’ ‘차세대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우려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다.

이정건 선교사=선교사 은퇴와 이양도 오늘날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다. 평생을 선교지에 드린 선교사들이 정작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머리 돌 곳이 없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하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입구전략에는 관심이 많지만, 선교사의 은퇴와 이양 등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도 사역에만 온 힘을 쏟지 은퇴 이후에 대해 물으면 당황한다.

KPM의 선교사 평균 연령은 54세이고, 향후 5년 내 은퇴할 선교사님은 12가정 24명, 향후 10년 내 은퇴할 선교사님은 38가정 76명이다. 2017년 은퇴를 10년 정도 남겨둔 선교사 36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선교지에 남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거처가 준비되면 한국에 돌아오겠느냐는 질문에는 결과가 뒤집어져 10명 중 3명만 선교지에 남고, 7명은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대답했다. 현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현지인이나 후배 선교사에게 리더십 이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 교회에 20년 이상 시무하면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교회에서 생활비, 거처 등을 제공하지만, 선교사는 30~40년 사역하고 돌아와도 갈 곳이 없다. 교회도 ‘언젠가는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KPM은 2016년 은퇴 10년 전인 60세 이상 선교사를 초청해 제주도에 모임을 가졌고, 올해는 은퇴 5년 전인 65세 이상 선교사를 초청해 제주도에서 모임을 했다. 현지인이나 후배 선교사에 리더십을 이양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은퇴를 할 것인지 나누었다.

후원교회에 선교사 은퇴 이후까지 책임지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은퇴 이후 삶을 디자인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선교사 은퇴관이나 은퇴마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김신의 기자

##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 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재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우),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모든 것은 폐품 되지만, 신앙은 썩지 않는 ‘금’ 같아야”



피종진 목사는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을 갖길 당부했다.

나눔과섬김의교회(엘리아 김 목사)가 피종진 목사 초청 부흥집회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었다. 19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 집회에서 피종진 목사는 간증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피 목사는 “싸움이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남서울중앙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성경에 ‘만민이 회의하는 교회니라’라는 구절이 없다. 대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한다”며 “교사 기도회, 재직 기도

회처럼 모임을 기도회라고 하면은 해롭다.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다. 그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주권자에게 뜻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며 “맛디아는 어떻게 피택을 받았나 하면 긴 세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고,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쓴 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변치 않는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 목사는 “이 세상에는 폐품이 많다. 자동차, 옷, 모든 물건들이 결

국에는 폐품이 된다. 그러나 금은 천년, 만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 우리도 주의 사역에 변함없는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며 “신앙이 반듯하면 모든 것을 반듯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마라톤을 할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정신력으로 달리게 된다. 신앙의 마라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력으로 지치지 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탄절을 아름답게 장식한 “헨델의 메시아”



기쁜우리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특별순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헨델의 메시아”를 공연했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본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다. 김경진 목사는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눅2:8-14)”의 제목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특별순서로 기쁜우리교회 연합찬양대(지휘: 이정욱, 반주: 조혜경)와 오케스트라가 성탄절 칸타

타 “헨델의 메시아”를 선사하며 크리스마스를 빛나게 했다. 또한 전교인이 함께 부른 할렐루야 코러스와 소프라노 해나 김(Hannah Kim), 알토 제인 심(Jane Shim), 테너 전승철, 베이스 장상근의 특별출연으로 웅장한 칸타타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성탄절 특별헌금 전액은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25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때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교회의 비전에 맞춰 2018년 제1회 장학위원회는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자녀, 일반학생, 의료기술 방면으로 나누어 재정상태, 신앙, 교회사역 및 봉사, 성적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해 35,000 불을 수여했다.

## 예장 대신 남가주노회, 두명의 장로 장립 돼



예배 후 단체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수호축) 남가주 노회가 장로 장립 예배를 2018년 12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에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에서 드렸다. 예배는 집례에 류당열 목사(남가주 노회장), 기도예 필립 이 목사(서기), 성경봉독에 곽태진 목사, 설교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이란 제목으로 류당열 목사, 권면에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축사에 박효우 목사, 강지원 목사(전 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 답사에 신영환 장로, 축도에 김봉훈 목사(백석대학 전교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양장로교회의 신영환·곽

창열 장로가 안수위원 일동으로부터 장립을 받았으며, 이경신 선교사와 김숙희 전도사가 새로이 임명을 받았다. 축사를 한 박효우 목사는 “장로들은 평신도들을 잘 지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라며 “목회자를 잘 받들어서 가장 큰 복인 자녀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지원 목사는 “남가주의 6000여명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진짜 장로라고 인정되는 분은 많지 않다”며 “목회자를 잘 돕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함으로써 교회 전반적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 “선교지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한인소망장로교회는 2018년 성탄절에 ‘LA아버지창고’와 멕시코에서 성탄예배를 드리며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했다.

한인소망장로교회(윤목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지난달 25일 “선교지에서 드리는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 오전 9시에 오병이어 선교회의 LA‘아버지 창고’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 후 두 팀으로 나뉘 한 팀은 그곳에 남아 노숙자들을 섬기고 다른 한 팀은 성탄 선물(300개)을 가지고 멕시코 뿔라(6시간 거리)에 가서 현지인 교회와 연합해 성탄절 저녁 예배를 드렸다. 윤목 목사는 “LA에 위치한 아버지 창고(1시간 거리)나 멕시코의 뿔

라(6시간 거리)나 모두 교회에서 가까운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탄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끼리 즐거워 하는 성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오셨다.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낮은곳!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 예배드렸다”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평화의사가  
통일의꽃길  
되리라

소강석 지음

새벽 성루에서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하박국처럼  
민족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절규하였던 가난한 신학생  
광야의 영성과 현대적 지성, 예술적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신도시 대형교회 부흥을 이룬 후  
개교회 성장을 넘어 사회적 기독교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서 평화통일의 봄을 외쳤던 목회자  
소강석목사, 그가 시로 써 내려간  
화해와 용서, 평화의 여정이 펼쳐진다.

304면 / 13,000원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36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사예단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2017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 윤동주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단국대학교 명예문학박사를 수여 받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전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320면 / 13,000원

예수 마리아가 되라

예수 마리아가 되라  
320면 / 13,000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296면 / 13,000원

미래교회 서바이벌

미래교회  
272면 / 12,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태)



100년전 삼일독립을 2019년 복음통일로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 복음통일전문세미나/연합기도회

##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

고국의 복음통일을 위하여 선교역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영화, 동족선교 사역 등의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주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기도로 함께 합니다.

- **대상** : 미주 각지역의 성도 및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2시 ~ 15일(금)
- **장소** :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 **문의** : T.(425)775-7477, 기독일보 T.(213)739-0403, 사랑의빛선교교회 T.(626)744-9191

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

저녁집회 메시지

임현수 목사
이정훈 교수
이승종 목사

영역별 강의

이학준 교수  
플러신학교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총장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대표
윤학렬 영화감독  
'철방 우수씨'외 다수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대북설교

주관교회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총무간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

### ■ 영역별 주제와 강사들 2월 12일(화) : 오후 2시~5시, 13일(수)~15일(금):오전 9:30~11:30 / 오후 1:30~4:30

<b>역사</b> –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학준 교수 (플러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Ph.D)
<b>현재 이슈와 국제 정치법</b> –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이정훈 교수 (울산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b>경제</b> – “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 신창민 교수 (서울대 법학과, 클레아몬트 경제학박사)
<b>문화와 영상</b> – “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문화의 영향력”, “통일영화제작이 필요합니다” 윤학렬 영화감독 (서울예대, 삼일독립100주년 남북공동시사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제작중, LA 아리랑/오박사네 사람들, 철가방우수씨, 지령이 등)
<b>통일신학교육</b> –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대 총장)
<b>탈북사역</b> –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대표)
<b>북한지하교회</b> –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 대북설교방송요원)
<b>통일의 전략</b> –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 끝까지” 김요한 목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 ■ 저녁집회 메시지와 강사들 2월 12일 화요일 저녁부터 매일 오후 7시~9시

첫째날(12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임현수 목사
둘째날(13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임현수 목사
셋째날(14일)	“청교도윤리로 세운 위대한 미국”	이정훈 교수
넷째날(15일)	“복음적 통일, 제단불 회복”	이승종 목사

주최 :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Global Expert Network for Reunification Korea)  
 주관 : 사랑의 빛 선교교회    협찬 : T.M.T.C,(사)합륙통일동포연합, 기독일보, 기드온동족선교